

GS칼텍스, BTX 280만톤으로 확장

창립40주년 맞아 전진 다짐 ... 중질유분해·경유탈황에 LNG까지 확대

GS칼텍스가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GS칼텍스는 창립 기념일(5월19일)을 하루 앞둔 18일 허동수 회장과 임직원 등 1100여명이 양재동 aT센터에서 <생일>을 자축하고 미래 발전을 향한 힘찬 전진을 다짐했다.

허동수 회장은 기념사에서 “2011년 아시아 최고의 수익성을 내는 종합에너지 서비스 리더가 되기 위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힘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GS칼텍스는 1967년 최초의 민간 정유기업(호남정유)으로 출발해 당시 하루 6만배럴의 원유 정제시설을 현재 72만2500배럴로 12배로 확대했고, 72곳에 불과했던 주유소는 충전소를 포함해 3600곳으로 증가했다.

매출은 114억원에서 2006년 19조1300억원으로 늘어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석유제품 수출액도 2006년 기준으로 자동차 90여만대에 버금가는 100억2700만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선두인 SK, 3위인 S-Oil과의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한 SK는 중국 등지로의 진출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화에 주력하며 멀리 달아나는 형국이고, S-Oil은 고도화설비 등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며 2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주몽처럼 말 달리자>는 허동수 회장의 공격경영 의지로 무장하고 신규설비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선제적 투자로 시장 확보에 나서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창사 이래 최고인 1조5000억원이 투자된 제2 중질유 분해시설(No.2 HOU)과 윤활기유 공장을 2007년 상업가동하고, No.3 HOU도 기본설계와 주요 장치 발주에 착수하는 등 고수익 시설 투자에 나서고 있다.

또 Aromatics 생산능력을 220만톤에서 2007년 말까지 280만톤으로 확대하는 한편, 2009년 3월 상업생산을 목표로 모두 3400억원을 투자해 No.4 경유 탈황설비도 건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주회사인 GS홀딩스와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해외유전 등 자원개발에도 주력하고, 가정용 연료전지, 수소스테이션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차세대 성장동력의 하나로 육성하는 한편 최근 장기 직도입에 성공한 LNG(액화천연가스) 도매사업도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오만 Sohar 공장 위탁운영권 획득 등 공장운영 기술과 경영노하우 수출, 중국 현지에서의 주유소 설립, 운영 및 PP(Polypropylene) 플랜트 확보 등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18>